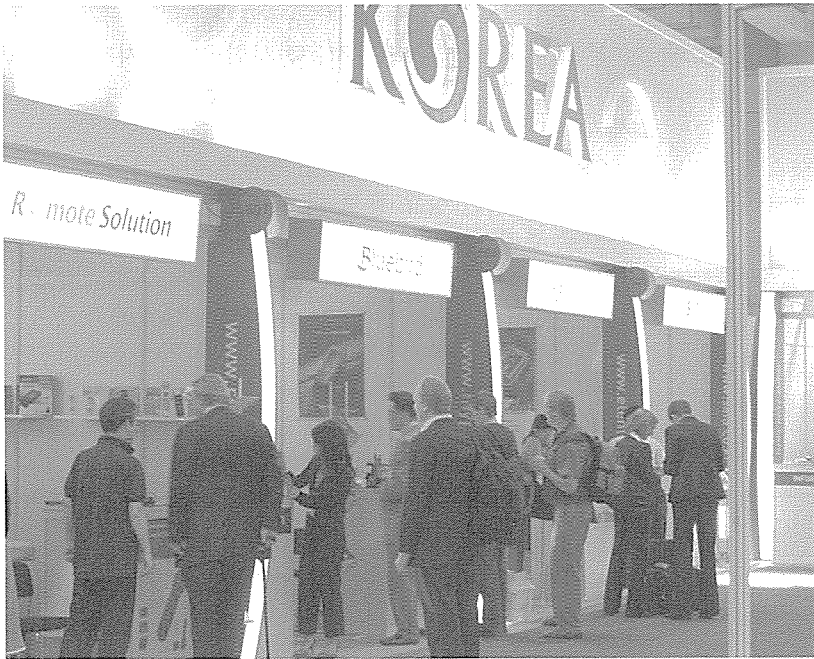


1. 중소 IT벤처들 IFA 2006서 기대 이상 성과



지난 9월 6일 독일 베를린서 폐막된 세계 최대규모 AV전문전시회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06' 에서 국내 16개 중소 IT벤처들이 1억9천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과 3천800만달러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이번 IFA2006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 IT벤처기업들로 4.1홀에서 16개사 24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디보스의 경우 새로 출시된 디지털 사인보드에 대해 스웨덴 AV유통전문기업과 대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코리아데이터시스템즈는 LCD, PDP TV에 대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의 신규 판매망을 새롭게 확보해 월 6천대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오라콤은 영국 DAB 전문업체인 퓨어디지털과 DAB 플레이어 관련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을 통해 유럽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버나인은 3차원 입체 영상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형 LCD 모니터 '디멘'이 호평을 받아 유럽 우수업체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이 성사되면서 유럽시장에서 AS, 판매 및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을 계획하고 있다.

PMP와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성과도 많았다. PMP 업체 맥시안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의 AV전문 유통업체와 대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있으며, 디오티의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이 내장된 내비게이션도 유럽 대형 유통전문업체와 700만달러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랜텍은 새롭게 출시한 PMP 겸용 네비게이션 블루나비를 선보이며 독일 및 프랑스 솔루션업체와 150만달러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시 현장에서 괄목할 만한 계약 성과를 올렸다.

산업용 PDA 전문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는 IC카드리더를 탑재한

울인원 모바일 및 DMB 청취와 무선인터넷,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초슬림 PDA를 선보여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바이어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2천만달러이상의 수출계약이 진행 중이다. 사파미디어도 러시아, 독일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회사에 500만달러 규모의 MP3 플레이어를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 가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출품작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2007년에는 한국관 부스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본회, IFA와 MOU체결

본회는 지난 8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전시회에서 IFA 주최 기관인 'Messe Berlin'과 '한국전자전(KES)과



IFA간 전시회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회는 국내 최대 전자전문전시회 한국전자전(KES)을 개최하고 있다. IFA는 Messe Berlin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V전문 전시회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아시아와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상호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본회의 최영훈 상무 'Messe Berlin'의 Dr. Christian Goke 부사장, Jens Heithecker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양 기관의 공식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IT시장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3. 전자업계 중소기업담당자 한자리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자분야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전자업계, 이제는 유해물질 규제 단속에 대비해야' 세미나를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갖고, 환경 이슈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환경·품질·구매담당자 300여명이 EU·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유해물질 사용 규제법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자제품 환경규제와 단속 그리고 주요 국별 단속현황 및 대응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자산업진흥회 강홍식 환경팀장은 "EU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과 일본의 유해물질 사



용 규제법(J-MOSS)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중국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공표했다"며 "국제 규제와 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특허지원센터, 특허제도 및 소송절차 국제세미나 개최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센터장 장재관)는 주요 수출지역에서의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일 서울무역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제도 및 소송절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일본·중국·독일 변호사들이 강연을 통해 국가별 특허대응방안을 설명했다.